

1인당 하루 쌀밥 한 공기 먹는다...연간 소비량 30년만 절반 '뚝'

통계청, 2020년 양곡 소비량 조사결과 발표

1인당 소비량 1990년 119.6kg→57.7kg 감소

빵·고구마 등 다른 양곡 소비 늘어 쌀 대체

코로나로 집밥족 늘면서 간편식 소비 증가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년 연속 50kg대에 그치며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하루에 쌀밥 한 공기(150g 기준)를 겨우 먹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등 집단 급식이 줄어들어 영향이 미미한 집밥족이 늘면서 간편식 쌀 소비는 늘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양곡년도(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으로 전년보다 1.5kg(2.5%) 줄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며 1990년 119.6kg에서 1998년 99.2kg으로 20kg가량 줄었고, 2019년에는 59.2kg으로 반토막이 난 데 이어 2년 연속 50kg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쌀 소비량도 1인당 158.0g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다. 밥 한 공기가 150g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하루 한 공기 정도만 쌀밥을 먹는 셈이다.

1970년 373.7g이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97년 280.6g, 2010년 199.6g으로 점차 줄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며 지난해 처음 160g 밑으로 떨어졌다.

밥상에 오르는 쌀의 양이 줄어든 대신 밀가루, 콩·팥 등 두류, 고구마·감자 등 서류 등의 기타 양곡 소비량은 증가했다. 1인당 연간 기타 양곡 소비량은 8.7kg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기타 양곡 중에는 콩·팥 등 두류(1.9kg)와 고구마·감자 등 서류(3.1kg) 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었다. 잡곡(1.1kg)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보리쌀(1.4kg), 밀가루(1.1kg)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양곡 소비(66.3kg)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7.0%로 0.8%포인트(p) 줄었다.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0.8%p 커졌다.

지난해 가구가 아닌 제조업 사업체의 연간 쌀 소비량 역시 65만130t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다. 식품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43만 6683t으로 11.7%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즉석밥 등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0만2955t으로 4.6% 늘었고,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도 9710t으로 4.6% 증가했다.



음료 제조업 쌀 소비량은 21만3447t으로 14.4% 감소했다. 주정 제조업(-17.6%)과 탁주 및 약주 제조업(-12.4%) 모두 감소 폭이 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냉동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 수요는 증가했으나 떡류·장류·탁약주용·주정용 등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식습관 개선,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소비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월 888만원 맞벌이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내달 2일 시행

민영주택 신혼 특공 맞벌이 130%→160% 기준 완화

공공임대주택 문턱 낮춰...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공공	현행		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민영	우선(75%)	100% 이하(맞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25%)	120% 이하(맞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	100% 이하		우선(70%) 100% 일반(30%) 130%
	130% 이하		우선(70%) 130% 일반(30%) 16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30%	140%
3인이하	555.5만원	722.2만	778만 889만

세전(稅前) 기준으로 월 888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혼부부 특공과 관련해서 현재는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100%(맞벌이 120%)인 사람에게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인 사람에게 주고 있다.

오는 2월2일부터는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로 완화된다. 우선공급 소

득 기준은 100%(맞벌이 120%)로 변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30%는 월 722만원, 140%는 778만원, 160%는 888만원이다.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850만원이었던 신혼부부(자녀 1명)가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100%(맞벌이 120%)에 제공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일반공급으로 130%(맞벌이 140%)에 제공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기준 외에 주택공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두 달 전에 입주예정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단지 규모별로 이사기간도 정해졌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대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새롭게 생긴다. 앞으로는 전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임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또한 개정안은 3기 신도시 등에서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매출·수출 '양극화 뚜렷'

"수출기업 매출 감소에도 절반 이상 올해 전망 낙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수출 실적이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된 '2020년 무역업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분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164개 업체가 응답한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수출 현황, 2021년 수출 전망, 그리고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를 담았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 규모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70.7%)이다.

업종은 전기전자(25.6%), 농수산·가공식품(20.7%), 자동차부품·기계류(14.0%), 화장품·생활용품(12.2%) 등이다.

조사 결과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응답자의 61.3%로 절반 이상 기업이 매출 감소를 겪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38.4%는 매출이 10% 이상 줄었다고 대답했다.

반면 2019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대답한 기업도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매출 증가 응답자 중 증가폭이 10% 이상 된다고 대답한 기업도 20.1%를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양극화를 보였다.

2020년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 비중(49.4%)이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 비중(29.5%)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이 중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8.5%를 차지해 어려웠던 지난해 무역환경을 대변했다.

하지만 수출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한 기업도 전체의 24.4%를 차지해 수출 실적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실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53.2%)는 2021년 수출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해 부정적 전망(19.7%)보다 낙관 전망이 많았다.

2021년 유망 시장으로는 지역별로 동남아시아(24.5%), 단일 국가로는 중국(1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자금지원(3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온라인 수출마케팅(18.0%), 수출입 운송 등 물류 여건 개선(14.6%), 세제혜택 마련(13.6%)이 뒤를 이었다.

이런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다양한 것은 기대보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탄탄한 수출 역량을 보여줬다"며 "기업들이 온라인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확인한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채재본부

애플 분기 매출 역대 최고...첫 1000억 달러 돌파

국 CEO "팬데믹 없었다면 결과 더 좋았을 것"

애플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애플은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114억4000만 달러(약 125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1.68달러로 시장 전망치(1.41달러)를 웃돌았다. 수익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28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에서 애플은 지난 4분기 아이폰 매출이 6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적인 재확산에도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12를 구매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아이폰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실적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 경영자는 "아이폰과 웨어러블이 매장 폐쇄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플의 PC 맥북 매출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86억9000만 달러, 아이패드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8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기기를 바꾸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의 주가는 27일 뉴욕증시에서 주당 142.06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약 1%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를 마쳤다.

최이슬기자

농가 경영 여건 개선...과일·축산물 가격 상승 영향

농가교역조건지수 5.3% 상승...농가판매가격지수 올라

정과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농축산물 경영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2015=100)는 1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상승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축산물 72개 품목 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경영활동에 투입된 421개 품목 가격지

수)로 나눈 값이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올라가면 농가의 채산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016년 103.6을 기록한 후 2017년 106.6, 2018년 105.8, 2019년 104.7로 계속 악화되다가 지난해 상승했다.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높아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0(2015=100)으로 전년보다 7.2% 상승했다. 기타 농산물 가격이 0.1% 하락했으나 정과물(14.2%), 축산

물(4.5%), 곡물(4.2%) 등이 상승했다. 상승 폭이 큰 품목은 감귤(12.9%), 사과(29.5%), 계란(13.5%), 한우(양소·8.1%), 배추(52.9%) 등이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1(2015=100)로 전년보다 1.9% 상승했다. 재료비(6.5%), 기계 용품(1.1%), 노무비(3.8%)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약비(22.8%), 사료비(4.0%), 비료비(7.2%), 영농자재비(5.0%), 농작업위탁비(2.9%), 임차료(2.4%) 등이 상승했으나 영농 광열비(-19.1%) 하락했다.

김민정기자